

'23년 사고사망만인율 0.39‰, 최초 0.3‰대 진입

- '23년 유족급여 승인기준 사고사망자 수 812명으로 전년대비 62명 감소
- 건설업(△46명)·제조업(△19명), 50인 미만(△70명) 중심으로 감소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산재보상통계에 기반한 2023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을 발표했다. 2023년 유족급여 승인 사고사망자는 812명으로 '22년(874명) 대비 감소(△62명)했고, 사고사망만인율도 0.39‰으로 전년 대비 감소(△0.04%p)했다. 이는 '14년도 이후 사고사망만인율이 0.4~0.5대에서 정체하다가 최초로 0.3‰대에 진입한 것이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356명(43.8%)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165명(20.3%), 「서비스업」 140명(17.2%), 「운수·창고·통신업」 111명(13.7%)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다만, 「건설업」(△46명)과 「제조업」(△19명), 「서비스업」(△10명)은 전년 대비 사망자가 감소한 반면, 「운수·창고·통신업」(+7명)은 사망자가 증가*했다.

* ▲운수·창고·통신업은 재해유형으로는 사업장 외 교통사고(77명, +10명), 근로형태별로는 노무제공자 중 화물차주(20명, +13명) 중심으로 증가

사고사망 유형으로는 「떨어짐」이 286명(35.2%)으로 가장 많았고, 「끼임」 88명(10.8%), 「사업장 외 교통사고」 86명(10.6%), 「부딪힘」 69명(8.5%), 「물체에 맞음」 68명(8.4%)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다만, 그간 사고사망자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여 '3대 다발 유형'으로 불리던 「떨어짐」(△36명)·「부딪힘」(△23명)·「끼임」(△2명) 사고는 감소한 반면, 「사업장 외 교통사고」(+9명)는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상위 3대 재해 유형에 속하게 되었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년 대비 감소(△70명)한 반면 50인 이상 사업장은 전년 대비 증가(+8명)했다.

* 「5~49인」 359명(44.2%), 「5인 미만」 278명(34.2%), 「50~299인」 130명(16.0%), 「300인 이상」 45명(5.5%) 순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고사망만인율 최초 0.3‰대 달성은 그간의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확산, 적극적 재정·기술지원, 안전문화실천추진단 등 안전문화·의식 내재화 노력이 중대재해 사이렌 등을 통한 경각심 제고와 어우러져 이루어낸 성과라 할 수 있다.”라면서,

“올해에는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대진단 실시, 자기규율 예방체계확산 등에 정책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증가하고 있는 노무제공자, 외국인 근로자 등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을 관계 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보다 자세한 통계자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 2023년 산업재해 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1] '23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망사고 현황

[붙임2] 사고사망 통계 관련 자주 하는 질문(FAQ)

담당 부서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희준 (044-202-8804)
		담당자	서기관 사무관 전문위원	윤종호 (044-202-8811) 차민경 (044-202-8812) 이현숙 (044-202-8813)



2023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망사고 전체 현황

<총괄> 2023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자 812명

- (전체) '23년 사고사망자는 812명으로 '22년 대비 62명 감소했고, 사고사망만인율은 0.39‰로 '22년 대비 0.04%p 감소하여 '99년 사고사망 통계 작성 이후 최초로 0.3‰대로 진입했다.



- (업종별) 「건설업」 356명(43.8%)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165명(20.3%), 「서비스업」 140명(17.2%), 「운수·창고·통신업」 111명(13.7%)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 '22년 대비 「건설업」(△46명)과 「제조업」(△19명), 「서비스업」(△10명)은 전년대비 사망자가 감소한 반면, 「운수·창고·통신업」(+7명)은 사망자가 증가했다.
 - 사고사망만인율은 「건설업」(1.59‰)이 가장 높았고, 「운수·창고·통신업」(0.99‰), 「제조업」(0.41‰), 「서비스업」(0.12‰)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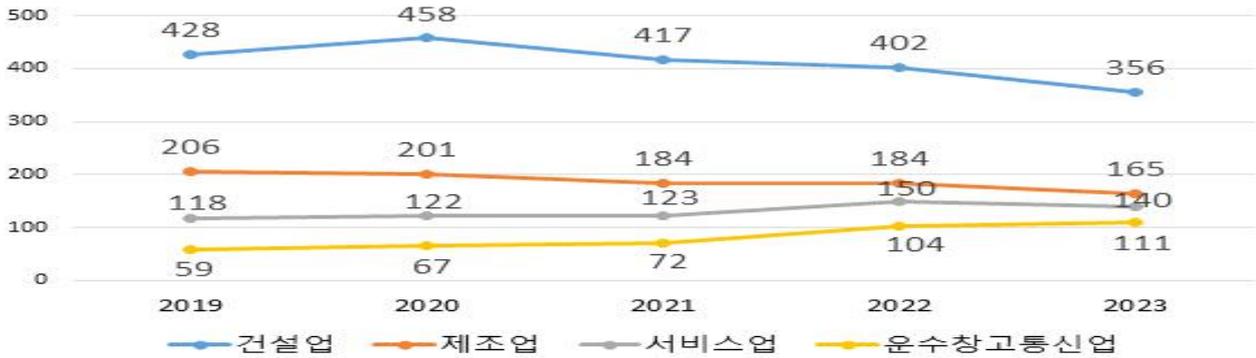
< 업종별 사망사고 현황('22년 vs '23년) >

(단위: 명, %, ‰, %p, ‰p)

구분	계		건설업			제조업			기타의 사업 (서비스업)			운수창고통신업			그 외 업종*		
	인원	만인율	비중	인원	만인율	비중	인원	만인율	비중	인원	만인율	비중	인원	만인율	비중	인원	만인율
'23년	812	0.39	356	43.8	1.59	165	20.3	0.41	140	17.2	0.12	111	13.7	0.99	40	4.9	0.34
'22년	874	0.43	402	46.0	1.61	184	21.1	0.46	150	17.2	0.13	104	11.9	0.97	34	3.9	0.30
증감	△62	△0.04	△46	△2.2	△0.02	△19	△0.8	△0.05	△10	0.0	△0.01	7	1.8	0.02	6	0.1	0.04

* 금융및보험업, 광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임업, 어업, 농업

< 5년간 업종별 사망사고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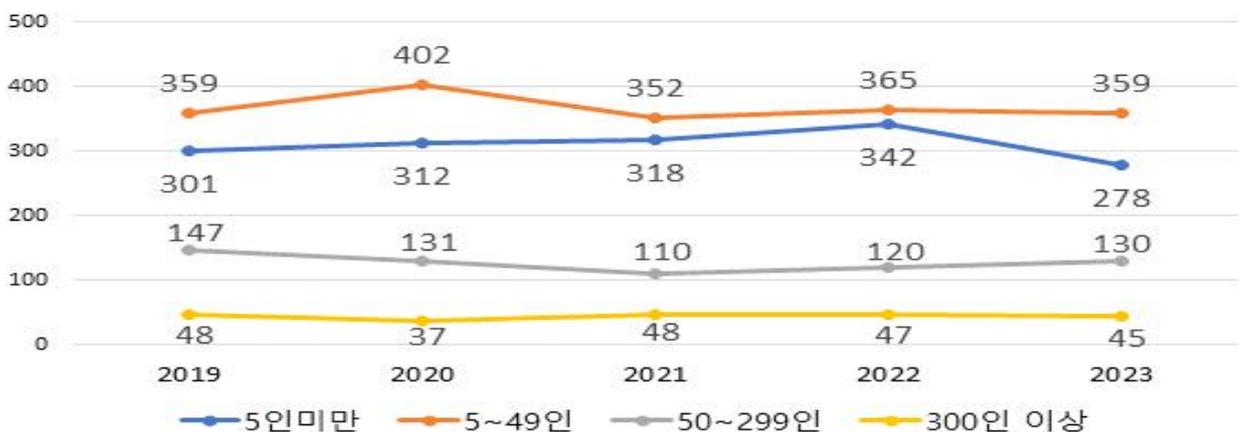
- (규모별) 「5~49인」에서 359명(44.2%)으로 가장 많았고, 「5인 미만」 278명(34.2%) 등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의 78.4%가 발생했다.
- 또한, 「50~299인」 사업장에서 130명(16.0%),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45명(5.5%) 발생했다.

< 사업장 규모별 사망사고 현황('22년 vs '23년) >

(단위: 명, %, ‰, %p, ‰p)

구분	계		5인 미만			5~49인			50~299인			300인 이상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23년	812	0.39	278	34.2	0.80	359	44.2	0.41	130	16.0	0.27	45	5.5	0.13
'22년	874	0.43	342	39.1	1.00	365	41.8	0.42	120	13.7	0.25	47	5.4	0.14
증감	△62	△0.04	△64	△4.9	△0.20	△6	2.4	△0.01	10	2.3	0.02	△2	0.1	△0.01

< 5년 간 규모별 사망사고 현황 >



□ (재해유형별) 「떨어짐」에서 286명(35.2%)으로 가장 많았고, 「끼임」 88명(10.8%), 「사업장 외 교통사고」 86명(10.6%), 「부딪힘」 69명(8.5%), 「물체에 맞음」 68명(8.4%)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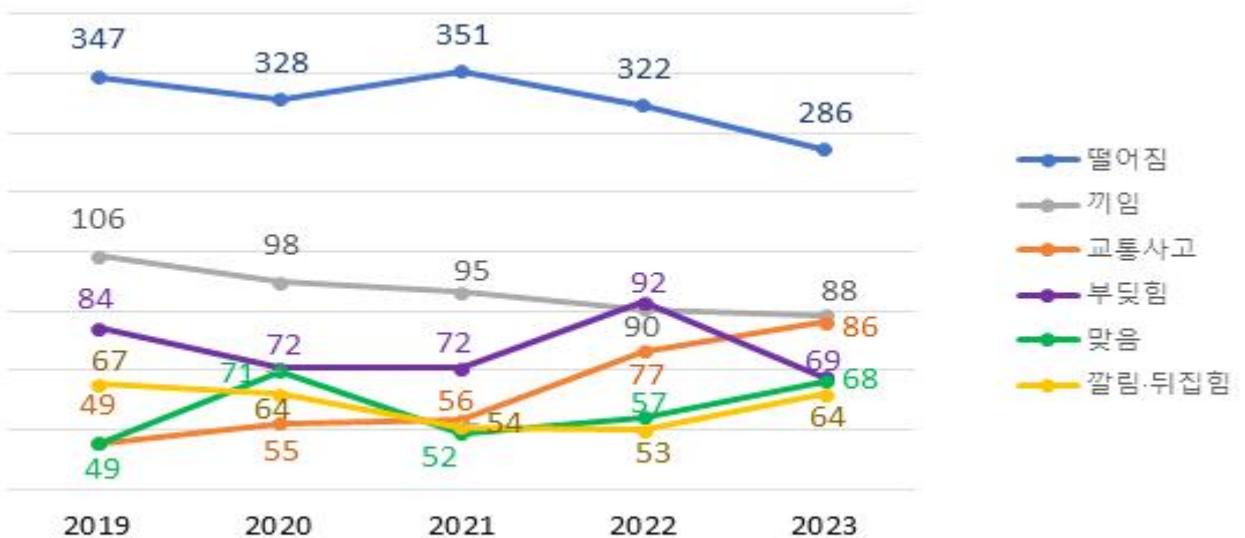
○ '22년 대비 「떨어짐」(△36명), 「부딪힘」(△23명) 유형에서 감소했고, 「물체에 맞음」(+11명), 「깔림·뒤집힘」(+11명) 유형에서 증가했다.

< 재해유형별 사망사고 현황('22년 vs '23년) >

(단위: 명, %, %p)

구분	계	떨어짐		끼임		사업장외 교통사고		부딪힘		물체에 맞음		깔림 뒤집힘		기타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3년	812	286	35.2	88	10.8	86	10.6	69	8.5	68	8.4	64	7.9	151	18.6
'22년	874	322	36.8	90	10.3	77	8.8	92	10.5	57	6.5	53	6.1	183	20.9
증감	△62	△36	△1.6	△2	0.5	9	1.8	△23	△2.0	11	1.9	11	1.8	△32	△2.3

< 5년간 재해유형별 사망사고 현황 >



업종별 세부 현황

① 건설업: (2023년) 356명(△46명)

- (총괄)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356명으로 전년 대비 46명 감소했고, 최근 5년 간 전체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사고사망자수(명)	428	458	417	402	356
사고사망만인율(‰)	1.72	2.00	1.75	1.61	1.59

- (공사금액별) 「1~50억원 미만」에서 160명(44.9%)으로 가장 많았고,
 - 「2천만원 미만」 51명(14.3%), 「120~800억원 미만」 50명(14.0%), 「800억원 이상」 36명(10.1%)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 '22년 대비 「2천만원~1억원 미만」(△27명), 「2천만원 미만」(△6명), 「800억원 이상」(△6명), 「1~50억원 미만」(△2명), 「50~120억원 미만」(△1명)에서는 감소, 「120~800억원 미만」(+1명)에서는 증가했다.

< 공사금액별 건설업 사망사고 현황('22년 vs '23년) >

(단위: 명, %, %p)

구분	계	2천만원 미만		2천만원 ~1억원		1~50억원		50~120억원		120~800억원		800억원 이상		분류불능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3년	356	51	14.3	33	9.3	160	44.9	24	6.7	50	14.0	36	10.1	2	0.6
'22년	402	57	14.2	60	14.9	162	40.3	25	6.2	49	12.2	42	10.4	7	1.7
증 감	△46	△6	0.1	△27	△5.6	△2	4.6	△1	0.5	1	1.8	△6	△0.3	△5	△1.1

- (재해유형별) 건설업 사고사망자 356명 중 「떨어짐」 198명(55.6%)으로 절반 이상 발생했으며,
 - 「부딪힘」 35명(9.8%), 「물체에 맞음」 28명(7.9%), 「무너짐」 27명(7.6%), 「깔림·뒤집힘」 24명(6.7%)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 '22년 대비 「떨어짐」(△17명), 「부딪힘」(△13명), 「무너짐」(△3명) 등에서 감소, 「물체에 맞음」(+6명), 「깔림·뒤집힘」(+2명)에서 증가했다.

< 상위 5대 재해유형별 건설업 사망사고 현황('22년 vs '23년) >

(단위: 명, %, %p)

구분	계	떨어짐		부딪힘		물체에 맞음		무너짐		깔림·뒤집힘		끼임		기타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3년	356	198	55.6	35	9.8	28	7.9	27	7.6	24	6.7	19	5.3	25	7.0
'22년	402	215	53.5	48	11.9	22	5.5	30	7.5	22	5.5	21	5.2	44	10.9
증감	△46	△17	2.1	△13	△2.1	6	2.4	△3	0.1	2	1.2	△2	0.1	△19	△3.9

② 제조업: (2023년) 165명(△19명)

- (총괄) 제조업 사고사망자는 165명으로 전년대비 19명 감소했고, 최근 5년간 전체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사고사망자수(명)	206	201	184	184	165
사고사망만인율(‰)	0.51	0.50	0.46	0.46	0.41

- (세부업종별)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에서 89명(53.9%)으로 가장 많았고, 「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 23명(13.9%), 「식품제조업」 10명(6.1%), 「수제품및기타제품제조업」 10명(6.1%)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 제조업 세부업종별(중분류) 사망사고 현황('22년 vs '23년) >

(단위: 명, %, ‰, %p, ‰p)

구분	계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			식품제조업			수제품 및 기타제품제조업			기타			
		만인율	비중	만인율	비중	만인율	비중	만인율	비중	만인율	비중	만인율	비중	만인율			
'23년	165	0.41	89	53.9	0.59	23	13.9	0.53	10	6.1	0.29	10	6.1	0.75	33	20.0	0.21
'22년	184	0.46	89	48.4	0.60	31	16.8	0.71	17	9.2	0.50	10	5.4	0.76	37	20.1	0.23
증감	△19	△0.05	0	5.5	△0.01	△8	△2.9	△0.18	△7	△3.1	△0.21	0	0.7	△0.01	△4	△0.1	△0.02

- **(규모별)** 「5~49인」 사업장에서 96명(58.2%)으로 가장 많았고, 「5인 미만」 32명(19.4%), 「50~299인」 24명(14.5%), 「300인 이상」 13명(7.9%) 순으로 많이 발생

< 규모별 제조업 사망사고 현황('22년 vs '23년) >

(단위: 명, %, ‰, %p, ‰p)

구분	계		5인 미만			5 ~ 49인			50 ~ 299인			300인 이상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23년	165	0.41	32	19.4	0.69	96	58.2	0.57	24	14.5	0.24	13	7.9	0.15
'22년	184	0.46	44	23.9	0.97	103	56.0	0.61	27	14.7	0.27	10	5.4	0.12
증감	△19	△0.05	△12	△4.5	△0.28	△7	2.2	△0.04	△3	△0.2	△0.03	3	2.5	0.03

- **(재해유형별)** 「끼임」에서 39명(23.6%)으로 가장 많이 발생, 「떨어짐」 34명(20.6%), 「깔림·뒤집힘」 23명(13.9%), 「물체에 맞음」 20명(12.1%), 「폭발·파열」 14명(8.5%) 순으로 많이 발생

< 재해유형별 제조업 사망사고 현황('22년 vs '23년) >

(단위: 명, %, %p)

구분	계	끼임		떨어짐		깔림·뒤집힘		물체에 맞음		폭발·파열		부딪힘		기타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23년	165	39	23.6	34	20.6	23	13.9	20	12.1	14	8.5	12	7.3	23	13.9
'22년	184	51	27.7	44	23.9	19	10.3	21	11.4	11	6.0	8	4.3	30	16.3
증감	△19	△12	△4.1	△10	△3.3	4	3.6	△1	0.7	3	2.5	4	3.0	△7	△2.4

- **(작업내용별)** 「운반, 상하역 및 운전작업」에서 57명(34.5%)으로 가장 많았고, 「기계기구, 설비 설치·보전작업」 45명(27.3%), 「물체의 가공, 취급작업」 38명(23.0%), 「물체의 연결·조립·설치·해체 작업」 16명(9.7%) 순으로 많이 발생

< 작업내용별 제조업 사망사고 현황('22년 vs '23년) >

(단위: 명, %, %p)

구분	계	운반·상하역 및 운전작업		기계기구·설비 설치·보전작업		물체의 가공·취급작업		물체의 연결·조립·설치·해체작업		청소 및 부가적작업		기타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23년	165	57	34.5	45	27.3	38	23.0	16	9.7	4	2.4	5	3.0
'22년	184	64	34.8	48	26.1	31	16.8	18	9.8	9	4.9	14	7.6
증감	△19	△7	△0.3	△3	1.2	7	6.2	△2	△0.1	△5	△2.5	△9	△4.6

참 고**그 밖의 업종 세부 현황(건설·제조업 외)**

< 그 밖의 업종 사망사고 현황('22년 vs '23년) >

(단위: 명, %, %p)

구분	계	기타의사업(서비스업)		운수·창고·통신업		그 외 업종	
			비중		비중		비중
'23년	291	140	48.1	111	38.1	40	13.7
'22년	288	150	52.1	104	36.1	34	11.8
증감	3	△10	△4.0	7	2.0	6	1.9

① 기타의 사업*(서비스업): ('22) 150명 → ('23) 140명, △10명

* 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서비스업 등

- (규모별) 「5~49인」 63명(45.0%), 「5인 미만」 61명(43.6%) 등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88.6% 발생
- (재해유형별) 「떨어짐」에서 37명(26.4%), 「끼임」 23명(16.4%), 「넘어짐」 16명(11.4%), 「부딪힘」 13명(9.3%), 「사업장 외 교통사고」 9명(6.4%) 순으로 발생
- (작업내용별) 「운반, 상·하역 및 운전작업」에서 49명(35.0%), 「행정·의료 등 서비스작업」 30명(21.4%), 「청소 및 부가적작업」 22명(15.7%), 「기계·기구, 설비 설치·보전작업」 17명(12.1%) 순으로 발생

② 운수·창고·통신업: ('22) 104명 → ('23) 111명, +7명

- (규모별) 「5인 미만」에서 38명(34.2%), 「5~49인」 37명(33.3%), 「50~299인」 23명(20.7%), 「300인 이상」 13명(11.7%) 순으로 발생
- 「사업장 외 교통사고」 77명(69.4%), 「부딪힘」 9명(8.1%), 「떨어짐」 8명(7.2%), 「넘어짐」 4명(3.6%), 「끼임」 4명(3.6%) 순으로 발생
- (작업내용별) 「운반, 상·하역 및 운전작업」 97명(87.4%), 「물체의 연결·조립, 설치·해체작업」 6명(5.4%), 「행정, 의료 등 서비스작업」 3명(2.7%)

③ 그 외 업종: ('22) 34명 → ('23) 40명, +6명

- 임업 16명(+5명), 농업 11명(+4명), 광업 6명(△6명), 어업 3명(+2명), 금융 및 보험업 2명(+1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2명(0명)

인적속성별 세부 현황

- (연령별) 「60세 이상」에서 372명(45.8%)으로 가장 많았고, 「50~59세」 243명(29.9%), 「40~49세」 109명(13.4%), 「30~39세」 53명(6.5%), 「30세 미만」 35명(4.3%)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단위: 명, %, %p)

구분	계	30세 미만		30세 ~ 39세		40세 ~ 49세		50세 ~ 59세		60세 이상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3년	812	35	4.3	53	6.5	109	13.4	243	29.9	372	45.8
'22년	874	35	4.0	66	7.6	134	15.3	259	29.6	380	43.5
증감	△62	0	0.3	△13	△1.1	△25	△1.9	△16	0.3	△8	2.3

- (외국인) 외국인 사고사망자는 85명으로 전체의 10.5% 수준이며, '22년과 동일하다.
 - 건설업에서 55명(+8명), 제조업에서 22명(0명), 그 밖의 업종에서 8명(△8명) 발생했다.

(단위: 명, %, %p)

연도	계	건설		제조		그 외 업종*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3년	85	55	64.7	22	25.9	8	9.4
'22년	85	47	55.3	22	25.9	16	18.8
증감	0	8	9.4	0	0.0	△8	△9.4

* 금융및보험업, 광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운수·창고·통신업, 임업, 어업, 농업, 기타의사업(서비스업)

- (노무제공자 및 중소기업사업주) 산재승인(유족급여)을 기초로 하는 사고 사망 통계 집계 방식으로 인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노무제공자 및 중소기업사업주의 사고사망이 포함되어 있으며,
 - (노무제공자) 고용형태 변화 및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 등에 따라 노무 제공자 사고사망자는 83명으로 '22년 대비 20명 증가했다.

- 직종별로는 「퀵서비스기사」에서 38명(45.8%)으로 가장 많았으며, 「화물차주」 22명(26.5%), 「건설기계종사자」 15명(18.1%), 「대리운전기사」 4명(4.8%)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 '22년 대비 「화물차주」(+15명), 「대리운전기사」(+4명), 「건설기계종사자」(+1명), 「방문판매원」(+1명)은 증가, 「퀵서비스기사」(△1명)은 감소했다.

< 노무제공자 사망사고 현황('22년 vs '23년) >

(단위: 명, %, %p)

구분	계	퀵서비스기사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3년	83	38	45.8	22	26.5	15	18.1	4	4.8	3	3.6	1	1.2
'22년	63	39	61.9	7	11.1	14	22.2	0	0.0	3	4.8	0	0.0
증감	20	△1	△16.1	15	15.4	1	△4.1	4	4.8	0	△1.2	1	1.2

< 최근 5년간 노무제공자 사망사고 현황 >



- (중소기업 사업주) 중소기업 사업주*(300인 미만) 사고사망자는 8명으로 '22년 대비 2명 증가하였다.

* '01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중소기업 사업주 대상으로 산재보험 임의 가입 → '20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지역별 세부 현황

□ 광역지방자치단체별

- '23년 한 해 동안 50명이 넘게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곳은 경기 222명(27.3%), 서울 79명(9.7%), 경북 60명(7.4%), 충남 59명(7.3%), 경남 58명(7.1%), 부산 52명(6.4%) 등 6곳이며,
 - '22년 대비 사고사망자수가 증가한 지자체는 전북(+12명), 부산(+11명), 충북(+3명), 경북(+3명), 인천(+2명), 충남(+2명), 세종(+1명)으로 7곳이며,
 - 감소한 곳은 경기(△34명), 경남(△17명), 대전(△10명), 대구(△9명), 전남(△9명), 강원(△7명), 서울(△6명), 울산(△3명), 제주(△1명) 등 9곳이다.
- 사고사망만인율이 0.39‰를 넘는 곳은 강원(0.71‰), 전북(0.69‰), 충남(0.61‰), 경북(0.57‰), 전남(0.56‰), 충북(0.55‰), 경남(0.48‰), 인천(0.47‰), 부산(0.45‰), 경기(0.43‰), 세종(0.41‰) 등 11곳이다.

< '23년 광역지자체별 사고사망 현황 >

(단위: 명, ‰, ‰p)

광역 지자체	사고사망자		사고사망만인율		광역 지자체	사고사망자		사고사망만인율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전체	812	△62	0.39	△0.04	경기	222	△34	0.43	△0.08
서울	79	△6	0.16	△0.02	강원	39	△7	0.71	△0.14
부산	52	11	0.45	0.08	충북	39	3	0.55	0.03
대구	23	△9	0.32	△0.13	충남	59	2	0.61	0.01
인천	48	2	0.47	0.02	전북	42	12	0.69	0.19
광주	18	0	0.37	△0.01	전남	40	△9	0.56	△0.13
대전	10	△10	0.17	△0.19	경북	60	3	0.57	0.02
울산	11	△3	0.22	△0.07	경남	58	△17	0.48	△0.15
세종	5	1	0.41	0.08	제주	7	△1	0.29	△0.05

□ 기초지방자치단체별

- '23년 한 해 동안 10명 이상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곳은
 - 경기 화성시(20명), 경북 포항시(18명), 경남 창원시(17명), 충북 청주시(16명), 경기 안산시(14명), 경기 평택시(14명), 경기 용인시(14명), 충남 천안시(14명), 인천 서구(13명), 경기 안성시(13명), 경기 김포시(13명), 경기 성남시(12명), 경기 고양시(12명), 경기 남양주시(12명), 서울 강남구(11명), 경기 포천시(11명), 인천 중구(10명), 대구 달성군(10명), 경기 수원시(10명), 경기 파주시(10명), 전북 군산시(10명), 경남 김해시(10명)로 총 22곳이다.

1 「유족급여 승인 기준 통계」란 무엇인지?

- 정부는 '75년부터 국가승인통계로써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 승인 자료*를 바탕으로 '산업재해현황(통계승인번호 118006호)'을 생산해 왔음
 - * ▲요양급여 승인건수 → 재해자 산출 ▲유족급여 승인건수 → 사망자 산출
- 이에 따라, 사고·질병, 사망·부상 등 모든 종류의 산재에 대한 통계를 고용부 홈페이지(분기) 및 KOSIS(연간)를 통해 발표하고 있고,
- 유족급여 승인 기준으로 집계한 '사고사망 현황'은 중요 정책목표로, 경각심 환기 차원에서 별도의 보도자료 등을 배포하여 왔음

2 3.7. 발표한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 통계와의 차이점은?

- 3월에 발표한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 통계(조사통계)는 중대재해 발생 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조사하여 보고한 자료를 사업주 법 위반 여부 등을 살핀 뒤 '발생일 기준'으로 집계한 통계이고,
 - 유족급여 보상승인 통계(승인통계)는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승인 건수를 '승인일 기준'으로 집계한 통계임
- * 예) '22년 사고발생 → '23년 보상승인된 경우, '22년 조사통계와 '23년 승인통계에 각각 산입

❖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고용부 예규) 상 정의규정

- ▶ 사망자수: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가 지급된 사망자 수. 다만, 사업장 밖 교통사고(운수업, 음식숙박업은 사업장 밖 교통사고 포함)·체육행사·폭력행위·통상의 출퇴근에 의한 사망,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망한 경우는 제외
- ▶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산안법상 안전·보건조치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중대재해로 발생 보고한 사망사고 중 업무상 사망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 승인통계는 사업주의 법 위반이 없는 재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조사대상이 아닌 재해도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았다면 집계되고,
- '23년에 발생하지 않은 재해도 다수 집계되어 있어,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 통계'의 발표 결과와는 상이함

③ 사고사망 통계를 이원화하여 관리하고 있는 이유는?

- 그간 공식적인 사고사망 통계는 승인통계가 유일하였으나, 승인 통계는 사고 발생에서 보상 승인까지 평균 4개월 가량의 시차가 있어 즉각적인 예방대책 수립에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 따라서, '22년 3월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조사통계를 공식화하여 산재 예방에 적시성 있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삼고,
 - 승인통계는 산재발생 현황의 장기간 시계열적인 추세를 살필 수 있는 자료로 그 목적을 이원화 한 것임

④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감축목표는 어떤 통계가 기준인지?

- 현재 사고사망만인율은 승인통계에 한해서만 산출하고 있어, '로드맵' 상 감축 목표는 승인통계를 기준으로 한 것임
- * $\text{사고사망만인율} = (\text{사고사망자 수} / \text{산재보험 적용 근로자수}) \times 10,000$

⑤ 조사대상 사고사망자 수가 승인통계 보다 200명 가량 적게 집계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 두 통계는 집계 방식과 기준이 상이하므로, 자연스럽게 수치 간 차이가 발생함
 - 특히, 승인통계는 사업주의 법 위반 및 산안법 적용 여부 등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집계 범위가 더 넓어, 수치가 더욱 크게 나타남
- 조사대상 사고사망자 수의 집계가 승인통계 확정보다 빠르기 때문에 승인통계 보다 먼저 발표한 것이며,
 - 두 통계는 모두 통계청의 승인을 받은 공식 통계인 만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앞으로도 꾸준히 관리·발표할 예정임